보성 녹차, 동해로 고사…우전차 수확 타격

6일 연속 영하 7도 기온에 피해
98농가 152ha 한파 피해 호소
고급차 생산 50~60% 감소할 듯
군 "피해 접수 뒤 가지 자르기"

보성의 대표 특산물 녹차가 지난 1월 폭설과 한파로 잎이 붉게 말라버리는 동해를 입었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부터 2월26일까지 지역 내 녹차 농가를 상대로 동해를 접수한 결과, 98농가가 152ha의 피해를 호소했다.

보성지역 전체 녹차 농가는 570농가이며, 총 재배면적은 755ha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면적이 20.1%에 달한다.

보성군은 동해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피해는 해안가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보성읍 쾌상리·미력면·복내면 등 내륙지역 녹차밭에 집중됐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보성지역에는 지난 1월5일부터 6일동안 영하 7도 이하의 강추위와 폭설이 이어졌다.

동해로 잎이 고사되면 결국 녹차나무의 일정 부분을 잘라줘야 한다. 이 작업만 수일 걸리는 데다 작업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투입돼야 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인 봄철 첫 잎 수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보성군은 이번 피해로 매년 4월 초부터 수확하는 우전·곡우 등 고급 첫물차 수확 시기가 일주일 이상 늦어지고, 고급차 수확량이 50~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2일 오후 동해를 입은 녹차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보성군은 전남도와 협의, 이달 말까지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한 뒤 피해 녹차밭 가지자르기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피해 농가에 대한 직·간접적 보상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 등이 동해를 입은 보성지역 녹차밭을 찾아 녹차잎 상태를 살피고 있다. 〈보성군제공〉

지난해 사상 최악 구례 수해 사유재산 피해액 1047억원

손해사정사 140일간 조사
정부에 손배 청구 자료 활용

지난해 구례읍 전체가 잠기는 등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사유재산 피해액이 1000억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이 5억원의 용역비용을 들여 손해사정사들이 현지 조사한 수해 사유재산 손실액이 1932건 1047억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손해사정사들은 지난해 9월16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140여일동안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수해 사유재산 손실액을 산정했다.

피해는 건물, 시설물, 농작물 등13개 분야 1932건이었다. 건물이 804건 288억6000만원으로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각종 시설물 피해가 350건 184억2000만원, 농작물 피해 605건 125억5000만원, 기타 동산 피해 274건 113억6000만원, 가재도구, 자동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구례군이 자체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이뤄졌다. 구례군은 이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례읍 피해주민 A(72) 씨는 "수해가 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피해 군민들에게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구례군은 도로·교량·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 3567억원을 투입, 복구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민주당 당정협, '구례비전 실현' 뜻 모았다

'미래비전 4+α' 성공 결의
지역 현안·균형발전·뉴딜 등 소통

구례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구례 비전 실현 및 미래 발전을 위해 한뜻을 모았다.

3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에서 김순호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 국·도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더 큰 구례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간다는 사명을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 미래비전 4+α권역 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군수, 지역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이현창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및 주요 당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구례 미래비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욱 주력키로 결의했다.

김 군수는 "4대 권역별 구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영호남 화합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자연드림 치유 힐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 업무 해결방안 모색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군수는 구례군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와 서울~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철회에 대해서 어느 안건보다도 군민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중요 현안임을 강조했으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혼합플라스틱 업사이클센터 건립지원 사업,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등 내년 준비 중인 지역 균형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전달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례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지난 2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위원장인 서동용 국회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국고 신청사업과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책사업의 경우 구상 단계부터 당정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준비한다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례군 당정협의회는 2019년에 개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당정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섬진강환경청 신설 재촉구
여수시의회, 결의안 의결

여수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재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환경부 등에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 제주도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관할하고 있다"며 "업무도 환경생태 보전에 집중돼 대기오염이나 유해물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또 최근 문제가 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일대 대기오염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조사를 할 것과 포스코도 정보 공개와 함께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04회 임시회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체의원이 성명을 내고 포스코에 환경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 거금도농협
소형 농기계 순회 수리

고흥 거금도농협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소형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순회 수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서비스센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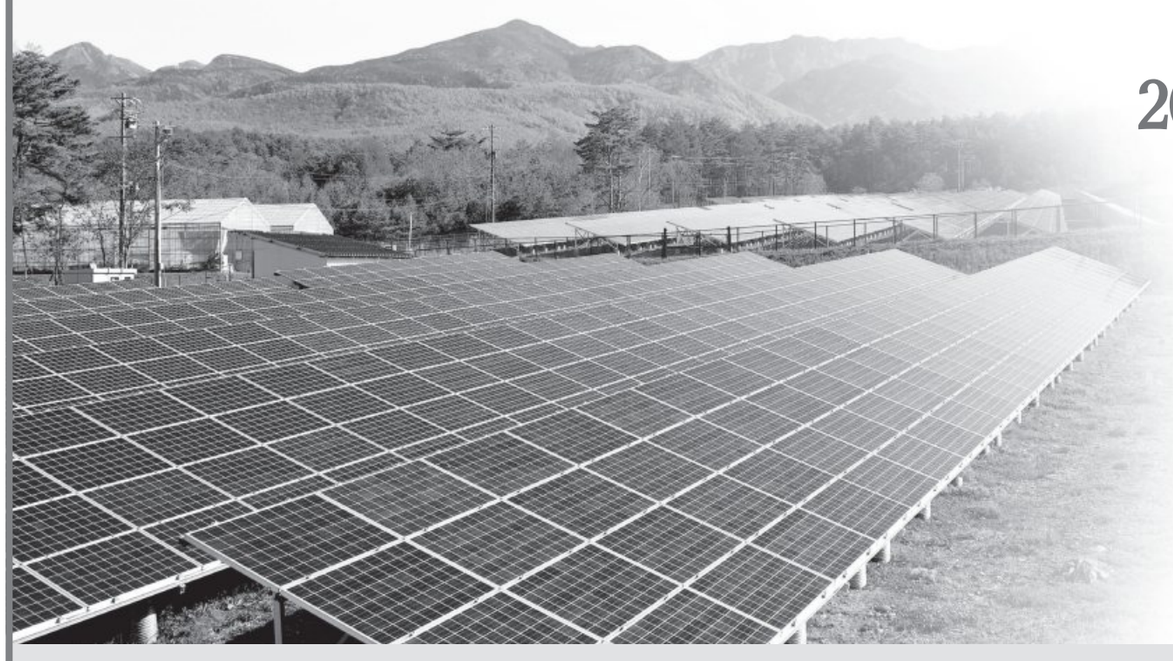
올해로 6년째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는 거금도농협은 순회 수리인력을 지원하고, 강진농협(조합장 정옥태)과 업무 협력으로 농기계 부품 차량을 지원받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다.

이번 순회 수리에서는 경운기·관리기·예취기 등 소형 농기계 120여대를 수리 및 무상 점검 해줬다.

추부행 거금도농협 조합장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는 순회 수리 횟수를 2회로 늘렸다"면서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